

대학생 개인진로상담에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이용석 조 향
차의과학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 개인진로상담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수준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이 변화양상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다 특정 시기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과 특성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상담 시작 시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불안만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율에 대한 개인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성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일수록 진로상담으로부터 얻는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넷째, 진로미결정 수준은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자기지향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상담 시작 시기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진로상담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성불안은 진로미결정 초기치 및 변화율의 개인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에서의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상담 효과, 완벽주의, 특성불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 교신저자 : 이아라,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151동 332호
Tel : 055-772-1267, E-mail : dreammaker@gnu.ac.kr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선택과 같은 진로문제로 고민한다. 개인이 몸담고 있는 직업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진로결정이 중요한 만큼,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매우 커지게 된다. 필요한 시기에 진로결정이 되지 않는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우울을 증가시키고(Smith & Betz, 2002), 무력감이나 무가치감을 경험하게 하며(Haines, Norris, & Kashy, 1996),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등(Tram & Cole, 2000)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상담은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상담서비스로,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다(Bailey & Stadt, 1973; 조지영, 천성문, 1999 재인용). 각 대학은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 교과목 등의 다양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결하여 진로결정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로상담서비스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특성(최윤정, 이지은, 2014)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통계청, 2014; 윤정혜, 유영림, 2015 재인용)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증가하는 진로상담에 대한 관심에 상응하여,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진로 관련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진로상담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한 관점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유현실, 2009), 그동안 이루어진 진로상담 관련 연구들은 진로상담이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Holland, Magoon, & Spokane, 1981; Phillips, 1992; Swanson, 1995). 국내 연구들 역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개인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이형국, 2010),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손애라, 유순화, 윤경미, 2015), 진로성숙도(이정애, 최용용, 200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된 진로상담성과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대부분의 진로상담 성과와 관련된 효과성 연구가 사전-사후 검사로 이루어져, 내담자 개인의 변화 양상이 아닌 단순한 효과 유무만을 보여주고 있다(Heppner & Heppner, 2003).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진로개입 성과 연구를 분석한 최윤정과 이지은(201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진로개입성과 연구의 94.3%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나머지 5.7% 연구 역시 사전-사후-추수(Follow up) 검사를 사용하였다. 반면 상담의 효과나 내담자의 변화를 종단적인 측정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담을 통한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상담의 성과 역시 내담자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개인의 변화와 상담의 성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상담 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Heppner & Heppner, 2003),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Willett, Singer, & Martin, 1998)은 진로상담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존 진로상담 성과 연구들이 가지는 두 번째 한계점은 바로 개인진로상담의 효과성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성과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윤정과 이지은(2014)은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대상의 85%가 진로프로그램을 포함한 진로집단상담의 효과성 연구였으며, 집단교과목과 워크숍을 제외한 개인진로상담 성과 관련 연구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로상담은 심리상담에 비해 집단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효과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개인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상담 성과 연구들은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집단상담의 성과는 개인상담의 성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개인 진로상담이 다른 형태의 진로개입에 비해 효과성이 높다고 보고한 메타연구(Healy, 2001)는 진로개인상담의 효과와 내담자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진로집단상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상담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상담의 성과를 확인하려는 국내 연구가 시도되었으나(김창대 등, 2010; 서영석 등, 2012), 이는 심리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담 현장에서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진로상담이라는 고유의 과정과 변화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진로상담 과정 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Brown과 Krane(2000)의 연구가 진로상담 과정에서 4~5회기까지의 초기 과정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

지만, 이러한 결과가 한국상황에서의 진로상담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개인의 진로 문제를 이해할 때 개인 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맥락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2000)이나, 내담자의 문화에 따라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 요구, 성과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제언(Brown & McPartland, 2005; Li & Kim, 2004)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로상담 성과나 변화양상이 외국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상담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창대 등, 2010).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진로상담성과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인진로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하는 상담 성과의 내용을 중단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지, 진로상담 과정 속에서 변화는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에서 진로상담성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정도의 변화정도로 산정하였다. 이는 국외 진로상담 성과 관련 연구들이 진로와 관련된 사고 및 정서의 성과 내용으로 해당 변인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의 제언(Whiston, 2001)에 기초한 것이다.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나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Taylor & Betz, 1983), 진로상담의 주요 성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제언(Fretz, 1981)과 함께 국내외에서 중요한 진로상담 측정치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인지이론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결과기대와 진로흥미, 목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며(Lent & Brown, 2008), 진로영역에 대한 결정과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임은미, 송미숙, 이수진, 2011), 진로상담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신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Crites, 1981; 송지은, 이정운, 2013 재인용)으로, 진로상담 분야의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왔다(김봉환, 김계현, 1995).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 중 하나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해결하고, 미결정을 줄이도록 돕는 것이 진로상담의 가장 전형적인 목표 중 하나가 된다(Gati, Krausz, & Osipow, 1996). 따라서 진로미결정의 감소는 진로상담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을 위해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진로상담의 과정과 성과에 내담자의 어떠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진로상담이 대부분의 내담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 양상은 내담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 초기 성과가 높지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내담자는 초기 회기 성과가 낮지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진로상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것에 더해 진로상담 변화 양상에 대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인내적 특성이 그러

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진로결정 수준과 변화 양상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내담자의 개인 특성을 알면, 그 특성에 맞도록 상담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상담의 방향성을 예측하며, 상담을 계획하는데 사용가능한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eppner과 Heppner(2003)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진로상담 성과와 관련된 메타 분석 연구들이 밝힌 효과크기가 .87(Spokane & Oliver, 1983)에서 .41(Brown & Krane, 2000)까지 광범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진로상담 상황들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언 역시 진로상담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나 내담자 변인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자들은 그 중에서 내담자의 성격 차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성격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자(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진로관련 어려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Saka & Gati, 2007) 때문이다. 과거 진로상담이 정보제공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진로상담은 개인의 성격적 요소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Heppner & Heppner, 2003)이나, 지금까지의 진로관련 연구들이 인지적인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성격·정서 요인에의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는 제언(김령, 이지은, 양은주, 2012)과도 유사한 맥락에의 관심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은 진로상담의 성과변인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변화양상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성격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고려한 상담에의 계획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진로미결정과 완벽주의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성격변인들이 함께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자아정체감(Guerra & Braungart-Rieker, 1999), 역기능적 진로사고(이재창, 최인화, 2006; Osborn, 1998), 완벽주의(김경은, 김승천, 2016; 김민선, 2014; 윤초암, 유현실, 2017; Lehmann & Konstam, 2011), 특성불안(어운경, 2011; 이보현 외, 2013;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등의 성격적 요인들이 개인의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 중에서도 특히 완벽주의가 진로상담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산정하였다.

우선 완벽주의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비합리적 목표를 설정하고, 불가능한 목표에 대해 압박을 느끼며 성취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Burns, 1980),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은 완벽주의 정도가 개인의 목표설정과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이재창, 최인화, 2006; 이현주, 2011; Lehmann & Konstam, 2011; Leong & Chervinko, 1996; Page, Bruch, & Haase, 2008).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완벽주의가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의 상담수가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제언에(Rice, Richardson, & Clark, 2012) 주목하였다. 즉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아니라, 다

수의 진로상담 내담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면, 이러한 성격특성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보다 실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완벽주의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에 따라 진로결정과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대표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영주, 2005; 이현주, 2011), 불안, 좌절, 낮은 자존감 등 만성적인 미결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Burka & Yuen, 1990)으로 확인되는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로 여겨지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높은 통제력 혹은 긍정적 정서들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기에(전명임, 이희경, 2011;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개인이 수행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진로결정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현주, 2011).

진로미결정과 특성불안

본 연구에서 개인의 진로상담 성과와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두 번째 개인특성은 바로 특성불안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불안은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주요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어 왔으며(이보현 등, 2013),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정의되는 특성불안(Spielberger, 1972; 장진이, 이지연, 2016 재인용)은 특정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불안인 상태불안보다 진로미결정을 더욱 크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Fuqua, Newman & Seaworth, 1988). 본 연구에서는 특히 특성불안이 대학생의 진로결

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나타내는 선별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제언에 (김봉환, 김계현, 1995) 주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발달 시기와 다르게 진로만족에 불안이 갖는 효과크기가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송보라, 이지원, 최혜승, 허준경, 이기학, 2014) 역시, 대학생들의 불안정도가 진로상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였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직업탐색이 유용하지 않다고 믿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탐색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Greenhaus & Sklarew, 1981), 결정에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으며(주명진, 김정남, 2011),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김민정, 김봉환, 2007). 또한 불안이 높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심리적인 불안정을 느끼게 되므로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같은 자극에도 더 많은 위협을 경험하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회피하게 된다(이현정, 1995). 또한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한효정, 2011; Saka & Gati, 2007)과 불안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홍혜영, 안혜선, 2009)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특성불안이 개인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특성불안 정도가 진로결정효능감과 결정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면,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불안의 정도가 높은 내담자가 보이는 진로상담의 변화는 불안과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내담자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성불안이나 완벽주의가 진로상담을 통해 일어나는 내담자 변화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해당 특성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일어날 상담변화 과정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상담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진로상담 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은 개인진로상담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진로상담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보이는 내담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변화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셋째, 진로상담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보이는 내담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변화 정도에는 개인 특성 변수들(완벽주의, 특성불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진로상담을 찾은 내담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수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심리상담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진로상담 자체를 주 목적으로 실시하는 서울 소재 A 대학의 경력개발센터의 내담자들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해당 경력개발센터에 진로미결정 문제로 '개인진로상담'을 신청한 대학생들로, 연구 목적과 정보 수집에 동의한 상담자들이 자신의 내담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내담자 역시 이에 동의한 경우 연구의 참여자로 포함되었다. 이 때, 조기종결한 사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상담자는 총 7명으로, 이들의 나이는 평균 36.86세($SD=3.24$)였고, 상담 경력은 평균 8.43년($SD=1.72$)이었다. 상담자 중 6명은 여성이었고, 1명은 남성이었다. 연구자들은 모두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수퍼바이저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3명이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한 대학생 내담자는 총 64명으로, 여학생 34명(53.1%), 남학생 30명(46.9%)이었다. 학년 구성은 1학년 2명(3.1%), 2학년 2명(3.1%), 3학년 18명(28.1%), 4학년 24명(37.5%), 기타(9학기 이상 등록) 18명(28.1%)이었다.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 38명, 자연과학 계열 19명, 사범계열 7명이었다. 진행된 회기 수는 5회기 미만 9사례, 5~9회기 48사례, 10회기 이상이 7사례였다.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SF)를 사용하였다. 이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DMSE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Betz, Klein 그리고 Taylor(1996)가 축약형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다시 이기학, 이학주(2000)가 번안한 것이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택, 미래 계획, 문제 해결의 5개 하위 요인을 포함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기학,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고,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68~.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다.

진로미결정

연구대상자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schier(1976)가 개발하고 고향자(1993)가 번안한 진로미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수준 2문항과 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16문항, 그리고 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반응형 1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유반응형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미결정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자(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이었다.

특성불안

연구대상자들의 특성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3)가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번안하였으며, 한덕웅, 이장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3)의 연구에서 특성불안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다.

다차원적완벽주의

연구대상자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였다. 이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기연(1993)이 번안 하였다. 원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진로상담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자기지향 완벽주의(15문항)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15문항)의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신뢰도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신뢰도는 .8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신뢰도는 .7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변화에 있어 개

인차에 대한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의 영향력을 검증해보기 위해 HLM 6.0을 이용하여 2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2수준 다층 성장모형에서 1수준 모형은 각 개인의 변화 궤적을 파악하고, 2수준 모형은 초기치나 변화율과 같은 개인의 성장모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특성 변인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수준은 사전회기부터 매 2회기마다 측정하였으며, 진로상담이 종결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개인 특성 변인인 완벽주의 성향과 특성불안은 상담 시작 전에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기술의 효율성을 위해 무조건 모형에 대한 식은 생략하였다.

<연구모형>

(Level-1) Time 수준

$$Y_{ti} = \pi_{0i} + \pi_{1i}a_{ti} + \pi_{2i}a_{ti}^2 + e_{ti}, \quad e_{ti} \sim N(0, \sigma^2)$$

(Level-2) 학생 수준

$$\pi_{0i} = \beta_{00} + \beta_{01}(\text{자기지향완벽주의}) + \beta_{02}(\text{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beta_{03}(\text{특성불안})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자기지향완벽주의}) + \beta_{12}(\text{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beta_{13}(\text{특성불안})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text{자기지향완벽주의}) + \beta_{22}(\text{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beta_{23}(\text{특성불안}) + r_{2i}$$

$$VAR \begin{bmatrix} r_{0i} \\ r_{1i} \\ r_{2i} \end{bmatrix} = \begin{bmatrix} \tau_{00} \\ \tau_{10} \ \tau_{11} \\ \tau_{20} \ \tau_{21} \ \tau_{22} \end{bmatrix}$$

1수준 모형에서의 종속변수인 Y_{ti} 는 내담자 i 가 t 시점에 지각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혹은 진로미결정 수준이며, π_{0i} 는 첫 회기 전에 측정된 초기치, π_{1i} 는 시간 변화에 따른 선형적 변화율을, π_{2i} 는 비선형적 변화율을 나타낸다. 오차항 e_{ti} 는 평균이 0, 분산이 σ^2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2수준에서의 β_{00} , β_{10} , β_{20} 는 초기치와 각 변화율 형태의 전체 평균을 의미하며, r_{0i} , r_{1i} , r_{2i} 는 무선흐과를 의미한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초기치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수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상담이 진행될수록 평균값이 점차 증가하다 8회기부터 다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담 진행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가 2차 곡선 형태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들이 먼저 종결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변화 양상을 속단할 수는 없다. 진로미결정의 경우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평균값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구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	64	39	85	63.41	9.9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	64	43	92	70.66	10.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	62	48	100	72.87	11.7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	48	54	99	76.63	10.2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	14	58	82	71.86	8.3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	10	51	77	68.20	5.55
진로미결정 0	64	23	90	67.09	13.36
진로미결정 2	64	33	82	60.28	12.23
진로미결정 4	64	19	80	56.56	12.08
진로미결정 6	46	32	75	53.09	10.73
진로미결정 8	14	39	65	55.71	8.50
진로미결정 10	10	51	64	57.80	4.49
자기지향 완벽주의	64	35	96	63.94	10.0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64	37	89	57.97	10.96
특성불안	64	53	110	77.19	11.86

표 2.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자가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특성불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미결정	-.55**	-			
자가지향 완벽주의	-.02	-.21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46**	.21	.51**	-	
특성불안	-.70**	.26*	.28*	.57**	-

* $p < .05$, ** $p < .01$.

이나 감소비율이 점차 낮아져서, 6번째 측정 시기에서는 오히려 진로미결정 수준의 평균값이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진로미결정의 변화 양상이 2차 함수 형태를 보 이리라 속단할 수는 없다.

상관분석의 주요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미결정 초기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p < .01$).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p < .01$),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진로미결정 초기치와 관련해서는 자가지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p > .05$), 특성불안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p < .05$).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및 특성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p < .01$, $p < .0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특성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p < .01$).

개인진로상담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 진행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양상과 그 개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다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형태(무조건 모형)의 무변화 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의 경우 초기치와 선형변화율의 상관은 -.06, 초기치와 비선형 변화율의 상관은 -.13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선형 변화율과 비선형 변화율 간의 상관은 -.61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먼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변화 모형에 비해 1차 함수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였다. 무조건 모형 중 1차 함수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1차 함수 모형의 경우 64.97점, 2차 함수 모형의 경우 63.63점이고, 상담이 진행될수록 평균적으로 1차 함수 모형은 1.96점, 2차 함수

표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모형 1: 무변화모형		모형 2: 1차 함수 모형		모형 3: 2차 함수 모형	
고정효과							
초기값							
	평균(β_{00})	70.82(1.12) ^{***}		64.97(1.19) ^{***}		63.63(1.21) ^{***}	
회기							
	평균(β_{10})			1.96(.20) ^{***}		3.62(.39) ^{***}	
회기²							
	평균(β_{20})					-.26(.03) ^{***}	
무선효과		분산성분	χ^2	분산성분	χ^2	분산성분	χ^2
1 수준	VAR(e_{ti})	65.15		26.81		21.99	
2 수준	VAR(r_{0i})	61.14 ^{***}	344.03 (df=63)	72.66 ^{***}	326.11 (df=63)	77.55 ^{***}	308.79 (df=61)
	VAR(r_{1i})			1.20	139.41 (df=63)	6.51*	83.98 (df=61)
	VAR(r_{2i})					.06*	81.78 (df=61)
	일탈 통계량 (deviance)	1922.38		1808.52		1779.36	
	df	2		4		7	

* $p < .05$, *** $p < .001$.

괄호 안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오차임.

모형은 3.62점 정도의 정적증가의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무선효과를 확인했을 때, 1차 함수 모형에서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에 대한 개인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r_{10} = 1.20$, $p > .05$) 2차 함수 모형에서의 변화율은 개인차가 유의하며 ($r_{20} = .06$, $p < .05$), 고정효과 모수를 토대로 그 변화 형태에 대해서도 앞서 예상했듯 정적 변화이후 기울기가 감소하는 곡선 형태임을 알 수 있다($\beta_{10} = 3.62$,

$p < .001$; $\beta_{20} = -.26$, $p < .001$). 또한 1차 함수 모형을 기준으로 2차 함수 모형의 일탈 통계량 (deviance statistic)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chi^2 = 29.16$ (df=3), $p < .001$). 결국, 고정효과와 무선효과 그리고 일탈통계량을 기준으로 2차 함수 변화 모형이 선형 변화 모형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여, 2차 함수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고 이후 조건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조건 모형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특성불안을 2수준 설명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처음 상담을 찾았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_{01}=.23, p<.001$). 하지만 사회

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에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_{02}=-.13, p<.05$), 자기지향 완벽주의와는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성불안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높은 내담자일수록 상담을 처음 찾았을 때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은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건 모형 분석

고정효과	계수	S.E
초기치(π_{0i})		
절편(β_{00})	63.63 ^{***}	.81
자기지향 완벽주의(β_{01})	.23 ^{***}	.07
사회부과 완벽주의(β_{02})	-.13 [*]	.07
특성불안(β_{03})	-.38 ^{***}	.06
변화율(π_{1i})		
절편(β_{10})	3.62 ^{***}	.41
변화율(2차항)(π_{2i})		
절편(β_{20})	-.26 ^{***}	.03
자기지향 완벽주의(β_{21})	-.01	.01
사회부과 완벽주의(β_{22})	.01	.01
특성불안(β_{23})	-.02 [*]	.00
초기치(B_0)	-.01 [*]	.00
모수효과	분산성분	χ^2
1수준(e_{ti})	22.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r_{00})	24.21 ^{***}	135.72(df=6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선형변화율(r_{20})	6.02	72.28(df=6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선형변화율(r_{20})	.05	66.69(df=58)

* $p<.05$, *** $p<.001$.

회기²에 해당하는 고정효과 추정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를 잠재 설명변수로 투입한 뒤 구한 보정된 계수(adjusted coefficients)임.

것으로 나타났다($\beta_{03} = -.38, p < .001$).

다음으로 2수준 설명변수들이 순간 변화율 (acceleration rat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_{21} = -.01, p > .05; \beta_{22} = .01, p > .05$). 반면에 특성불안은 순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성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beta_{23} = -.02, p < .05$). 또한 잠재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가 순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특성불안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이 있었다.

그림 1은 상담 진행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실선은 2수준 설명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변

화 궤적이며, 점선은 특성불안이 ± 1 표준편차인 내담자들(다른 설명변수는 무시하였음)들에 대한 변화 궤적이다. 2수준 모수효과를 살펴보면, 초기치에 대한 개인차는 2수준 설명변수에 의해 약 69%가, 순간 변화율은 약 20%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난 후의 순간 변화율에 대한 모수효과와의 분산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u = .05, p > .05$). 하지만 초기치에 대한 모수효과에 대한 분산은 상당히 큰 설명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u = .24.21, p < .001$).

개인진로상담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이, 상담 진행에 따른 진로 미결정 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변화양상과 개인차를 다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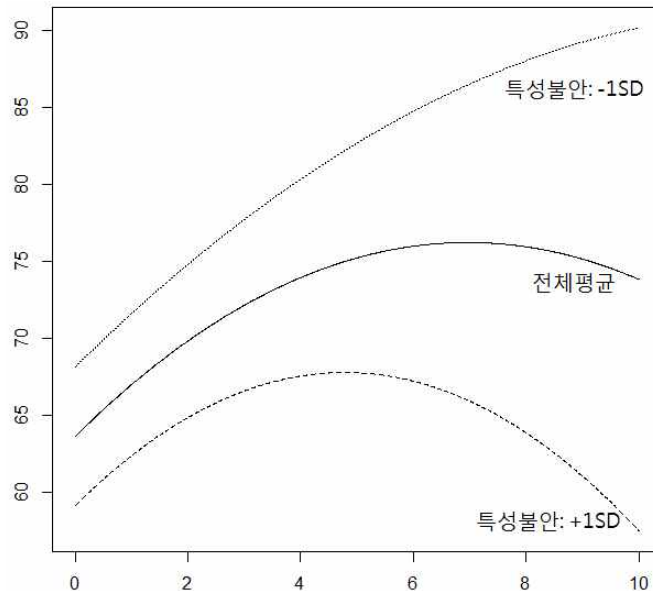


그림 1. 상담 진행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추이

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밑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차 함수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은 무변화모형에 비해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함수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면,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의 진로미결정의 평균점수는 1차 함수 모형의 경우 66.58점, 2차 함수 모형의 경우 66.80점이고, 상담이 진행될수록 평균적으로 1차 함수 모형은 2.61점, 2차 함수 모형은 3.04점 정도의 진로 미결정 감소 양상을 나타냈다. 무선효과를 확인했을 때, 1차 함수 모형에서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내담자 간

차이 역시 존재하는 반면($r_{10}=1.65, p<.001$), 2차 함수 모형에서의 변화율은 내담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r_{10}=2.32, p>.05; r_{20}=.01, p>.05$). 특히, 비선형모형의 고정효과 모수를 토대로 진로미결정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 자기효능감과는 반대로 초기 이후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beta_{10}=-3.04, p<.001; \beta_{20}=.08, p<.05$). 진로미결정 비선형 모형에서의 2차항은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하여 그 궤적이 비선형 모형을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 시점에서의 순간기울기를 확인해 봤을 때

표 5. 진로미결정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모형 1: 무변화모형		모형 2: 1차 함수 모형		모형 3: 2차 함수 모형	
고정효과							
초기값							
	평균(β_{00})	58.83(1.31) ^{***}		66.58(1.64) ^{***}		66.80(1.62) ^{***}	
회기							
	평균(β_{10})			-2.61(.21) ^{***}		-3.04(.34) ^{***}	
	회기 ²					.08(.04) [*]	
무선효과							
		분산성분	χ^2	분산성분	χ^2	분산성분	χ^2
1 수준	VAR(e_{ti})	81.57		20.54		20.21	
2 수준	VAR(r_{0i})	89.35 ^{***}	326.10 (df=63)	157.34 ^{***}	735.54 (df=63)	151.49 ^{***}	578.60 (df=63)
	VAR(r_{1i})			1.65 ^{***}	206.40 (df=63)	2.32	80.50 (df=63)
	VAR(r_{2i})					.01	65.40 (df=63)
	일탈 통계량 (deviance)	1999.17		1800.95		1800.36	
	df	2		4		7	

* $p<.05$, *** $p<.001$.

괄호 안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오차임.

선형적 양상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매우 미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차항 무선효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reliability(=0.05), 초기치와의 상관($r=-0.722$)을 확인한 결과 2차항의 무선효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제외하여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형모형을 기준으로 비선형 모형의 일탈 통계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Delta\chi^2=.59$ ($df=3$), $p>.50$) 이러한 판단을 지지해주고 있다. 결국, 무선효과 그리고 일탈통계량을 기준으로 선형 변화 모형이

2차 함수 변화 모형보다 자료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여, 진로 미결정 분석에서는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고 이후 조건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특성불안을 2수준 설명 변수로 투입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처음 상담을 찾았을

표 6. 진로미결정에 대한 조건 모형 분석

고정효과	계수	S.E
초기치(π_{0i})		
절편(β_{00})	66.55***	1.41
자기지향 완벽주의(β_{01})	-.44***	.12
사회부과 완벽주의(β_{02})	.32*	.15
특성불안(β_{03})	.12	.16
변화율(π_{1i})		
절편(β_{10})	-4.61***	1.24
자기지향 완벽주의(β_{11})	-.43***	.01
사회부과 완벽주의(β_{12})	.26*	.11
특성불안(β_{13})	.13	.09
진로미결정 초기치(B_0)	.02*	.01
모수효과	분산성분	χ^2
1수준(e_{ti})	20.55	
진로미결정 초기치(r_{00})	114.56***	570.67($df=60$)
진로미결정 변화율(r_{10})	1.53***	207.84($df=60$)

* $p<.05$, *** $p<.001$.

회기²에 해당하는 고정효과 추정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를 잠재 설명변수로 투입한 뒤 구한 보정된 계수(adjusted coefficients)임.

때 진로미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_{01} = -.44,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달리 진로미결정 초기치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02} = .32, p < .05$). 특성불안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은 내담자일수록 상담을 처음 찾았을 때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_{03} = .12, p > .05$).

다음으로 2수준 설명변수들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에 특성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회기 진행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beta_{21} = -.43,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beta_{22} = .26, p < .05$). 특성불안의 영향 역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같은 방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_{23} = .13, p > .05$). 2수준 모수효과를 살펴보면, 초기치에 대한 개인차는 2수준 설명변수에 의해 약 27%가, 변화율은 약 7%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난 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모수효과의 분산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u_{00} = 114.56, p < .001$; $\tau_{10} = 1.53, p <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진로상담을 받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수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의 개인내적 특성이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진로상담성과 변인을 2회기마다 측정하여, 그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논의점과 상담 현장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다 일정 시점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소 시작 시기는 내담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약 6회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미결정 수준은 상담 종결 시기까지 선형적인 형태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효능감과 다른 변화 패턴을 보였다. 즉 개인진로상담 내담자들은 진로상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로가 점점 결정된다고 느끼지만, 진로와 관련하여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진로미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모두 중요한 진로상담의 성과 변인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Whiston, 2001), 진로상담 과정에서 두 변인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학문적·임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우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 양상은 진로상담 성과 연구들을 종합한 Brown과 Krane(200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진로상담 초기에는 상담효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5회기에 최고점에 달하며,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로상담은 아니지만,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연구한 Lambert와

Cattani-Thompson(1996)의 연구에서도 상담회기 진행에 따른 효과성의 수준이 점점 증가하다 일정 시점이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효과가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진로미결정의 수준은 상담과정을 통해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일반 심리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또 다른 연구인 서영석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영석 등(2012)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즉시성이 내담자의 상담성공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고함으로써, 즉시성의 효과와 상담의 효과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개인진로상담이 대학생 내담자의 진로결정을 보다 확신하도록 돕고,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진로상담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주의 깊은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 양상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내담자의 회기가 다양했기 때문에, 5회기 미만 사례와 10회기 이상 사례가 진행된 내담자가 보유한 특성이나 문제의 심각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특성불안이라는 개인차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양상을 다르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양상을 일괄적으로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문제의 첫 번째 결과는 진로상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많은 선행연

구들은 다양한 진로상담 프로그램들이 내담자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제안하지만(손애라 등, 2015; 이형국, 2010; Halaszr & Kemptom, 2000; Sullivan & Mahalik, 2000), 실제 개인진로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이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내담자들은 상담초기 상담자의 지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점차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에 상담이 더욱 진행되면 이러한 정보탐색과 고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정과정이 아무리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수 있다(Norman, JoAnn, & Spencser, 2009). 결정과정의 전반부에는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노력에 따라 불확실성이 충분히 감소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게 된다(Lipshitz & Strauss, 1997).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이 내담자들의 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왜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개인진로상담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예측하여, 특히 4~5회기 이후에 내담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가 효능감의

감소를 보고한다고 해도 이것이 진로상담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때 효능감을 낮추는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해서 탐색하고 자신의 결정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수준의 초기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유선영(2014)이나 이현주(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 및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전명임, 이희경(2011)과 Flett 등(1991)의 연구결과와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반면 특성불안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기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미결정 초기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특성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김미소(2015), 김민정과 김봉환(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상담을 찾은 내담자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결정수준을 보이는 경우에 이러한 원인을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내담자들은 흔히 자신의 진로결정 문제를 '직업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해서' 등의 자기이해부족이나 정보의 부족 때문으로 귀인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내담자가 가지는 성격적인 불안함의 정도와 그들이 가지는 완벽한 기대에 대한 신념이 그들의 결정과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들은 진로상담 내담자들의 효과적인 상담을 촉진하기 위해, 내담자 문제에 대한 사례개념화를 함에 있어 다른 다양한 요인뿐 아니라 내담자들의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이라는 기질적, 성격적 요인의 수준과 그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나 기질적 요인에 기인하는 진로미결정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Amir와 Gati(2006), Santos(2001)의 제언들을 고려해볼 때, 성격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진로상담 내담자들에게는 다른 원인을 가진 내담자들 보다 다양하고 장기적인 진로상담 개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상담 진행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수준의 변화 정도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자들에게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상담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장벽을 예상하여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변화 양상이 다른 내담자들과 달랐는데, 특히 상담 후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폭이 컸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주요특성 중 하나가 실패에 대한 위협감을 매우 크게 느낀다는 것(Spielberger, 1975; 오은주, 2014 재인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들 역시 진

로상담의 초기 진행과정에서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자기이해와 장벽의 대처방법을 마련하는 경험을 하면서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으나, 상담의 후기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가능성에 대한 직면, 대안의 마련, 위험감수 등의 과업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의 위협성을 훨씬 크게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진로상담의 후반부인 실행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정서가 개입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언(Amundson, Harris-Bowlsby, & Niles, 2009) 역시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결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진로상담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이 기대하는 스스로의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은 진로상담이 진행될수록 진로미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기대를 중시하고 외부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담자일수록 진로미결정이 적은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의 차원에 따라 진로상담 성과 역시 중요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노력과 내적 동기 요소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현주, 손원숙, 2013), 진로상담과정에서도 높은 추진력을 가지고 결정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이들이 가진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특성(한영숙, 2011)이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해서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이현주, 2012).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이 다른 내담자들에 비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과 관련한 효능감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 때 내담자 스스로 실망하거나, 상담을 비롯한 진로준비행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의 후반부인 실행단계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함께 다루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성취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내담자들에게는 보다 단기간의 성취지향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기대와 이상에 압박을 받는 내담자들에게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상담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이들이 가진 외부 기대의 초점과 기대가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하나의 진로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들이 보이는 지연행동의 기제를 이해하며, 진로상담 장면에서 이들의 완벽주의 수준을 낮추는 개입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 대학생 개인진로상담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담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상담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진로상담의 효과 여부만을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는 여러 차례의 반복측정을 통해 내담자들의 변화 과정을 다루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내담자의 진로미결정수준의 변화를 통해 진로상담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가 선형적으로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로

상담 효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개인상담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집단프로그램과 개인상담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입방법일 뿐 아니라, 특히 다른 종류의 진로개입보다 개인진로상담의 효과성이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Whiston, Sexton, & Lasoff, 1998)의 제언을 고려하면, 연구자들과 상담자들은 개인진로상담의 효과성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부분의 종단연구와 달리 종속변인에 대한 초기치를 기율기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기율기에 대한 설명변인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엄밀히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기율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초기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초기치 자체가 기율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율기에 대한 설명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초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진로상담의 효과를 특정 대학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기에 이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 수가 많지 않아 상담자의 개인특성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내담자와 호소문제의 특성에 따라 상담자의 개입방법이 다양했기에 상담자의 이론적 개입 방법 역시 분석에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이나 개입방법을 고려하여, 상담자 특성이 진로성과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을 선정하

였지만, 추후에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특성 변인들이 추가되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진로상담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층성장모형은 독자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모형을 수식적으로 좀 더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안정적인 통계 계산이 가능하지만(Shin, 2007), 모형 간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조 방정식을 통한 잠재성장모형처럼 절대적인 모형 적합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측정모형 및 잠재변인들의 오차분산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분산행렬은 구조방정식 기반의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시에 모형 내에서 설정하기도 용이하지만, 다층성장모형에서는 연구자가 다양한 공분산행렬의 정보를 얻기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모형에 대한 적합도 정보와 측정오차를 반영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등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3).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경은, 김승천 (2016).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심리내적 특성 차이: 완벽주의,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7(1), 21-40.
- 김령, 이지은, 양은주 (2012).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미결정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

-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김미소 (2015).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과 특성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김민선 (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4), 145-166.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대학생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95-1016.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창대, 윤정순, 박소은, 유성경, 손난희, 한영주, 윤정숙, 김경하, 이지영, 홍세희, 권경인 (2010). 한국 상담성과와 상담자 효과.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 서영석, 조화진, 조민아, 김민선, 최바울, 고은영, 안하얀, 백근영, 최영희, 석분옥, 이정선, 민경화, 김효주, 박준호 (2012). 상담자 즉시성이 상담회기평가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회기-내담자-상담자 3수준 다층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53-780.
- 손애라, 유순화, 윤경미 (2015). 사회인지적 진로집단상담이 공과대학 여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34(3), 151-170.
- 송보라, 이지원, 최혜승, 허준경, 이기학 (2014). 성인의 전생애적 진로만족 연구: 생애주기별 사회인지진로변인과 삶의 만족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5(5), 1791-1810.
- 송지은, 이정운 (2013).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상담학연구, 14(4), 2107-2123.
- 어윤경 (2011). 특성불안이 대학생의 진로 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 38(3), 163-182.
- 오은주 (2014).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2), 85-107.
- 유선영 (2014).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유현실 (2009). 진로상담 성과준거에 관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 연구, 10(4), 2187-2206.
- 윤정혜, 유영림 (2015).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 479-504.
- 윤초암, 유현실 (2017). 대학생의 방어적 과대 자기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 59-78.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보현, 두훈, 이은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 (2013). 대학생의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있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383-1400.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영주 (2005). 완벽주의와 특성 불안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재창, 최인화 (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이정애, 최응용 (2008).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129-146.
- 이현정 (199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통제소재 및 불안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현주 (2011).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아헨디캡전략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3), 21-39.
- 이현주 (201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중재효과. *진로교육연구*, 25(4), 199-220.
- 이현주, 손원숙 (2013). 고등학생의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19-239.
- 이형국 (2010). 인지적 정보처리접근 중심 대학생 진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1(2), 701-720.
- 임은미, 송미숙, 이수진 (2011).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전환 준비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4), 1-20.
- 장진이, 이지연 (2016).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역량에 따른 군집유형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7(1), 47-65.
- 전명임, 이희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67-83.
- 조지영, 천성문 (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 및 과정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01-136.
-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최윤정, 이지은 (2014). 진로 개입 성과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상담학연구*, 15(1), 321-341.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학생지도연구*, 10(1), 214-222.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한효정 (2011).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적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특성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34(4), 483-503.
- Amundson, N. E., Harris-Bowlsbey, J., & Niles, S. G. (2009). *Essential elements of career counseling: Processes and techniques*. New Jersey.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rown, S. D., & Krane, N. E., R. (2000). Four(or five) sessions and a cloud of dust: Old assumptions and new observation about career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740-766). New York: Wiley.
- Brown, S. D., & McPartland, E. B. (2005). Career intervention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rd ed., pp 195-226). Mahwah, N.J.: Erlbaum.
- Burka, J., & Yuen, L. (1990).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Upper Saddle River, NJ: Addison-Wesley.
- Burns,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61-68.
- Fretz, B. R. (198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areer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77-90.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reenhaus, J. H., & Sklarew, N.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 1-12.
- Guerra, A. L., & Braungart-Rieker, J. M. (1999).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3), 256-266.
- Hains, M. E., Norris, M. P., & Kashy, D. A. (1996). The effects of depressed mood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7, 519-526.
- Halasz, T. J., & Kemptom, C. B. (2000). Career planning courses and workshops. In D. A. Luzzo (Ed.), *Career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s: An empirical guide to strategies that work* (pp. 157-17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aly, C. C. (2001). A follow-up of adult career counseling clients of a university extension center.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363-373.
- Heppner, M. J., & Heppner, P. P. (2003). Identifying process variables in career

- counsel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429-45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
- Holland, J. L., Magoon, T. M., & Spokane, A. R. (1981). Career interventions, research and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279-305.
- Lambert, M. J., & Cattani-Thompson, K. (1996). Current finding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601-608.
- Lehmann, I. S., & Konstam, V. (2011). Growing up perfect: Perfectionism,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career indecision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9, 155-16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ong, F. T. L.,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 Li, L. C., & Kim, B. S. K. (2004). Effects of counseling style and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on counseling process with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56-167.
- Lipshitz, R., & Strauss, O. (1997). Coping with uncertainty: A naturalistic decision-making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9(2), 149-163.
- Norman, E. A., JoAnn, H. B., & Spencer, G. N., (2009). *Essential elements of career counseling: Processes and techniques*. NJ: Pearson/Merrill.
- Osborn, D. S. (1998).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Osipow, S. H., Carney, G. C., Winer, J. L., Yanico, B. J., & Kosschier, M. (1976).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 Page, J, Bruch, M, A., & Haase, R. F. (2008). Role of perfectionism and five- factor model traits in career indeci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811-815.
- Phillips, S. D. (1992). Career counseling: Choice and implementa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pp. 513-547). New York: Wiley.
- Rice, K. G., Richardson, C. M. E., & Clark, D. (2012). Perfectionism, procrast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 288-302.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3), 340-358.
- Santos, P. J.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4), 381-396.
- Shin, T. (2007). Comparison of three growth modeling techniques in the multilevel analysis of longitudinal academic achievement scores: Latent growth model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d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8(2), 262-275.
- Smith, H. M. & Betz, N. E. (2002). An Examination of efficacy and esteem pathways to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38-448
- Spokane, A. R., & Oliver, L. W. (1983). The outcomes of vocational interventions.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1st ed., pp. 99-116). Hillsdale, NJ: Erlbaum.
- Sullivan, K. R., & Mahalik, J. R. (2000). Increasing career self-efficacy for women: Evaluating a group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54-62.
- Swanson, J. L. (1995). The process and outcome of career counsel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2nd ed., pp. 217-259). Mahwah, NJ: Erlbaum.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753-760.
- Whiston, S. C. (2001). Selecting career outcome assessments: an organizational schem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3), 215-228.
- Whiston, S. C., Sexton, T. L., & Lasoff, D. L. (1998). Career intervention outc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50-165.
- Willett, J. B., Singer, J. D., & Martin, N. C. (1998). The design and 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of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context: Statistical models and methodological recommenda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395-426.

원 고 접 수 일 : 2016. 10. 20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3. 02
게 재 결 정 일 : 2017. 04. 03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of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Min-Chul Kang

Cha University

A-Ra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i-Ra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Seok Lee

Hang Jo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This study employed the Latent Growth Model to investigate how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changed through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d how student perfectionism and trait anxiety affected the changes in two outcome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first, that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sessions) up until a certain point, and then decrease. Second, students with higher self-oriented perfectionism, lowe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lower trait anxiety had significantly highe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rd, trait anxie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hanges; clients with higher trait anxiety showed slower self-efficacy growth. Fourth, career indecision levels tended to decrease over time. Lastly, students with higher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lowe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higher initial career indecision scores that decreased rapidly over time.

Key words : career counseling outcomes, Latent Growth Model, perfectionism, trait anxie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